

중국을 제외한 해외 여행지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데, 독일, 스페인, 코타키나블루가 각각 한 번씩 등장하였다. 이는 앞서 언급되었던 국내 여행지와 비교해보았을 때 다소 낮은 빈도이다. 이를 통해 현재의 여행 트렌드가 외국이 아닌 국내에 맞춰져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.